

“ 기독교인의 품위와 고상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

■ 이종윤 원로목사

16세기 개혁자들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 왜곡 그리고 형태가 손상되었을 때 과감하게 본래의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성경의 교회 모습보다는 무례하고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변두리로 몰아내고 제 주장 세우기에 급급하고 어디서나 최고가 되고 자기 것만 최선이라고 우겨대는 모습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반기독교적, 반예수, 반성경운동이 확산되고 Anti기독교 사랑하는 모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무례나 무지를 타하기 전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시인해야 한다.

어떻게 고상하고 품격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신전(Coram Deo)의식을 갖고 사는 이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신을 믿는다면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진 이들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온다고 믿는 이가 기독교가 자기만의 종교요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냐 다 들어주신다면서 자신의 탐욕 충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여 ...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편이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라” 하신대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 상대방을 경쟁상대나 부리는 대상으로가 아니고 소망, 기쁨, 자랑의 대상으로 타인을 보아야 한다. 현실에 초연하고 궁극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할 때 신앙의 고상함과 품위가 드러나게 된다. 초대교회에도 위선, 이단, 음란, 당치기,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있었으나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 배우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바뀜으로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출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즉 무신론자, 복술자, 창녀,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죄를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와 가치관의 변화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물질관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높은 도덕심과 영성 때문에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삶을 사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상에 살지만 이방인같이 살되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 천국백성은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다른 삶을 산다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기독교가 그 질적 독특성 때문에 가졌던 품위와 고상함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회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자.

-한국장로신문 [1377호] 2013년 8월 3일에서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2부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새벽기도회, 각 교육부서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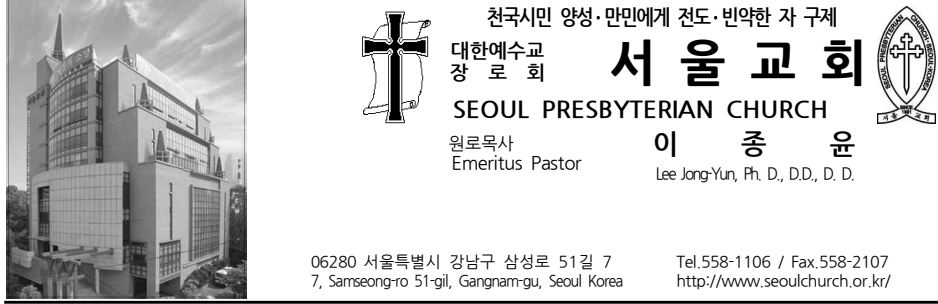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228_sermon.jpg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근 선교사 권경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수(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상,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 2 ”

■ 고전 7:1-7

세상은 성경의 교훈과 편이하게 다른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도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힘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만 결혼하겠다는 헌신된 길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이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함이 합법적이다’(24장 3항)라고 말씀합니다.

1.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본문 1절과 2절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내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 말씀은 음행을 피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혼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생활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경건생활을 할 때 매우 유익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적 문란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의 정체성 확립과 유자에 혼인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깐 가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잠 18:22). 아내를 얻는 것이 복된 일이 됨은 태초에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에 기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시고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모두 거룩한 경건생활에 필수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야말로 행복의 샘터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 복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얻게 되고 장수의 복도 얻게 되고 자손의 번창도 이루어지며 영화로운 자리에까지도 나아가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첫 토대가 가정인 것입니다.

2. 행복은 맘 흘린 만큼 커진다.

가정은 행복을 분출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의무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4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하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역할분담에 충실하는 것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길임을 교훈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살리지 않는 말과 행실은 먼지만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랑이 담긴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바쁜 선물을 사줘도 자기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이 요구되는데 허물며 한 몸이 된 부부자간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외에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적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아담의 갈바뿔로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는 능능한 분이시지만 오직 하와라는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WCF 24장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자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진다든지 한 여자가 한 남편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돕는 자들이 되도록 경건한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로 교회를 번성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24장 1, 2항).

맺는 말

성경은 동성 간의 결혼이나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를 금합니다.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로 번성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천교도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함임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두 시민민의 행복이 아닌 주변 사람들, 가까이사는 양가 부모들과 형제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의 행복을 조성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하고 복된 가정은 자희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이다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고틀을 저장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조정식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호 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5(사순절 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5(25)...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7:7-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3)”... 서정원 목사
 * 찬 송 Hymn459(51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86:11-13 인 도 자
 찬 송 515(256) 다 합 께
 기 도 장윤기 집사
 성 경 행 20:28-3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자기 피로 사신 교회” ... 설 교 자
 * 찬 송 183(172)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I부: 최금숙 권사 II부: 최복희 권사
 성 경 삼하 12:15-2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께 간구하되”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 회 소 식

알 림

-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271명	332명	1,603명	391명	1,635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30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누룩운동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질적 성장을 말씀하셨다. 한덩이의 작은 누룩이 항아리 속의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 주님의 복음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 내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제도를 고치면 사회가 변화될 줄 아는 것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이들의 오판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룩 운동을 이 사회 속에서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 천국복음누룩운동 본부인 교회가 천국복음을 확산시킴으로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잡아주고 부패한 부분은 도려내고 어둡고 그늘진 곳엔 빛을 비추어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로 거듭나게 해야할 것이다.

언어생활, 일상생활은 물론 경건생활에까지도 새롭고 깨끗한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의 누룩을 던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